

江邊 海邊, 河畔, 湖畔이란 여러가지 이름을 합쳐 水邊 空間 즉, 워터·프론트(Water front)라 한다. 새로운 國土나 도시계획의 개발공간으로 구미·일본 등을 주로 하여,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니 큰 주목을 받고 있다기 보다 「부움」의 열풍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 이 수변공간이 이만큼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왜냐하면 오랜 옛날부터 하천, 호수, 저수지 및 바다 등의 수변은 우리 인간의 생활영역 중에서 다양스럽게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시화와 함께 우리 인간생활과 부딛침으로써 여러문제가 표면화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근대화에 부수된 하천유역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된 오늘날, 인간과 물 사이의 전통적으로 깊고 무의식적으로 친숙한 맷음이 소원하게 되었다. 사실, 도시에 있어서 하천은 물과 산, 물고기 등 자연과의 접촉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고 또한 산책길, 운동 등의 공원적 이용도 가능한 親水空間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하천의 수변공간은 근자의 도시화에 의한 하천환경의 악화로 오염되어 가고 있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용이 요청되고 있다. 하천기능인 종래의 治水(홍수방지) 및 利水(생활·공업·농업용수원)와 더불어 保水(수질정화)기능이 중요시되어 하천경관보전이나 아메니티(Amenity) 즉, 희적성을 창출하는 방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관류하는 한강개발은 水邊空間計劃으로 마무리하여 治水·利水·保水의 세기능 외에 토지이용(올림픽 大路, 고수부지의 시민공원화)의 차원까지 고려한 우리나라 처음의 워터·프론트개발이라 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리버·프론트(River front)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都市計劃에 의한 도시정비나 재개발에 있어서 수변환경의 존재를 인식하여 그

水邊空間의

활용

崔榮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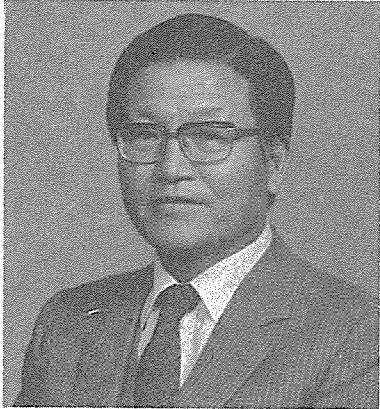
〈高麗大工大 교수·土木工學〉

도시정비에서 再考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게 됐다. 親水란 용어는 구체적으로[물놀이], 낚시 등의 레크리에이션기능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오늘날은 生態系의 보전과 경관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만족의 개념을 포함하여 「環境形成機能」을 상징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댐, 저수지, 溜水池도 지형적 요인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댐건설에 의해 형성된 담수면을 가진 수변이라 할 수 있다. 저류천은 농업·공업·생활용수 또는 수력발전용수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근래에 물의 수요증가로 수자원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담수면은 한때 수상교통이나 내수면어업의 장으로 이용되었으나 오늘날 수상교통은 관광유람용으로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변공간도 특히 도시화에 의해 잡폐수 오수나 유입하천수의 오염으로汙泥의 퇴적이거나 부영양화의 수질오염으로 보전에 문제가 많다.

또한 호반지역의 무질서한 토지 이용, 관광레



저시설 등으로 수변경관 파괴, 공공적 오픈 스페이스의 감소등의 문제가 많다. 특히 호안, 저수지의 매립 및 토사퇴적으로 본래의 기능도 저하하고 있다. 따라서 호안의 경관조성과 호수의 자연 정화능력에 대한 제고가 절실한 현실이다.

구미의 워터·프론트개발은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에 의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로 들어가자 종전의 물에 대한 인간들의 대응이 180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도시에는 생산력이 확대되고 권력, 돈, 사람 및 물질이 집중됨으로써 도시가 거대화한 까닭이다.

사실, 도시의 거대화는 20세기의 산물이다. 공업화의 여명기인 19세기에 있어서 도시는 아직도 100만인 정도의 규모였으나 20세기에는 천만인 단위의 거대도시가 나타났다.

공업화 및 대도시화는 종래의 도시양상을 일변 시켰는데, 특히 도시하천이나 해안 항만이 매우 변화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변화는 물의 生態系를 산산조각으로 토막을 내어놓았다.

돌이켜 보면, 해외무역에 의한 財富와 文化的 전진기지이고 造船業을 위시한 근대공업의 요람지이기도 하였던 港灣이 오늘날 크게 변화한 것이다. 이는 컨테이너 부두화에 의한 항만유통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해안선(또는 水際線)이 길고 후방 야적장이 적은 옛부두로서는 거대한 컨테이너 부두화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넓고 깊은 앞바다(外海)에 새로 건설하게 되어 이 까닭에 옛날의 부두는 사용되지 못하고 황폐화할 수 밖에 없었다. 무용지물이 된 이 황폐화된 옛부두를 그 항만도시 개발 전략으로 토지이용면에서 그 도시의 문화와 결부시켜 재개발한 것이 워터·프론트의 출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약 13,200km의 해안선과 1,32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奇岩, 白砂長松의 수려한 水邊空間이 있고 國土의 65.2%를 경유한 5大江, 그리고 땅높이가 15m 이상 되는 인공호수인 大小貯水池가 628개로서 우리나라의 21세기 國土開發에 있어서 워터·프론트개발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자각해야 하겠다. 중국 속담에 「물은 그릇에 따라서 形態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이 물을 돌보지 않고 관심 밖으로 취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좋은 水邊空間을 방원으로서는 無機的으로 딱딱한 構造形態 속에 가두어 두고 있다.

특히 물을 직접 대처하는 토목기술은 이때까지 자연을 폐쇄하는 것만 다루어 왔다. 기술이 고도화하고 기계가 巨大化한 까닭에 지금 자연을 개조하는 것은 쉽다. 한편, 역으로 도시화개발에 의한 자연으로부터 반작용을 당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기술인은 자연을 정복하는 기술에서 자연을 활용하는 기술, 자연과 함께 생존하는 기술, 반작용하는 물과의 융화,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극도로 발달한 文明社會 속에서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시키고 나아가서는創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성할 단계에 왔다고 하겠다.